

수능, 작년처럼 쉽게...영·수 다소 까다로울듯

2016학년도 수능시험 주요 일정

3월31일(화)	시험기본계획 발표
7월6일(월)	시험세부계획 공고
8월27일(목)~9월11일(금)	원서교부, 접수 및 변경
11월12일(목)	시험일
11월12일(목)~11월16일(월)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11월23일(월)	정답 확정
11월13일(금)~12월2일(수)	채점
12월2일(수)	성적 통지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올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

영어, EBS지문 변형 출제...해석본 암기 소용없게 수학 1~2문항 '고난도'...탐구영역 비중 확대 전망

다른 지문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들이 EBS 영어 교재의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다만, EBS 연계 방식을 바꿔도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쉬운 단어와 문장을 쓸 방침이다. 올 수능에서도 각 영역별 EBS 70% 연계비율은 유지된다. 70% 원칙은 문항 수 기준이다. 연계 유형은 중요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이다.

또 문항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제진과 별도로 문항점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평가원은 6월4일과 9월2일 두 차례 모의 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의 수준을 파악할 예정이다. 성적은 12월2일까지 통지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에서 수학 B형과 영어 영역의 체감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험생들은 지난해 만점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난이도 조정이 불가피하고, 영어는 7~8문항에 해당하는

EBS교재 지문이 변형 출제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작년 수학B형 만점자 비율이 4.3%로 상위권 학생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쉬운 수능이라고 해도 출제자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만점자 속출을 막기 위해 작년보다 고난도 문항이 1~2문항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EBS 영어교재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에 따라 영어의 체감난이도는 작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어·수학 등 주요 과목이 쉽게 나오면 탐구 영역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지난해 탐구영역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돼 당락을 좌우했는데 올해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31일 서울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대입수능을 위한 사회, 과학탐구영역 참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1일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 및 2016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영어, 수학 등을 쉽게 출제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등 탐구영역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1월12일 시행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는 수험생들이 EBS 한글 해석본을 달달 외우는 패턴을 막기 위해 똑같은 지문을 출제하지 않는다. EBS 영어교재의 지문이 변형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영어를 다소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 시험은 11월12일 실시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은 A/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으로, 영어는 통합형 시험으로 치러진다. 난이도가 높은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금지된다. 때문에 문과 수험생은 국어 B형을, 이과 수험생은 수학 B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능의 특징은 영어영역에서 EBS 연계 방식이 바뀐다. 영어 읽기평가에서 '대외파악'(목적·주장·주제 찾기)과 '세부정보'(지문과 일치하는 내용 찾기)를 묻는 문항에 한해 과거처럼 EBS 교재와 같은 지문이 아니라 주제, 소재는 유사하지만

광주지역 고입배정 기준 '석차'대신 '성취도'로

시교육청, 성취평가제 시행따라 내신성적 산출 방식 변경

광주시교육청이 고입 배정의 기준이 되는 내신성적 산출 방식을 '석차'에서 '성취도'로 변경했다. 교육부의 성취평가제 전면 시행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신성적 산출을 표준점수에 의한 석차에서 성취도에 따른 환산점수로 바꿨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교육부의 성취평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산출 방식을 성취도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성취평가제는 일정기준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거두면 등수에 관계없이 동일 등급을 부여하는 내신 제도로 절대평가다. 중간·기말고사 성적과 수행평가 결과를 합쳐 총점을 내 △90점 이상이면 A등급

△80~89점 B등급 △70~79점 C등급 △60~69점 D등급 △59점 이하 E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광주시교육청은 각 과목별로 A등급 5점, B등급 4점, C등급 3점, D등급 2점, E등급 1점을 부여해 전체 과목의 총점을 낸다. 동점일 경우에는 인성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가산점을 줘 성적을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산출한 성적을 고교 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특정 고교

에 우수한 성적이 학생이 풀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내신성적을 3개 등급(1등급 8%, 2등급 9~80%, 3등급 81~100%) 분류해 고르게 배정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고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없애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체 교육과정에서 3분의 2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4월이나 5월초에 고교 입학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학생이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고등학교 입학시기를 늦춰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던 '학업단절'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0 해질 18:53 달돋이 16:05 달질 04:26

"비 그쳐요"--오늘 만우절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 새벽부터 점차 그친 뒤 오후엔 구름 많았다.

◇지역별 날씨(°C)

광주	비온뒤	14/21	보성	비온뒤	11/17
목포	비온뒤	10/18	순천	비온뒤	14/19
여수	비온뒤	13/16	영광	비온뒤	12/19
나주	비온뒤	14/19	진도	비온뒤	10/18
완도	비온뒤	12/17	전주	비온뒤	13/20
구례	비온뒤	12/19	군산	비온뒤	11/18
강진	비온뒤	12/18	남원	비온뒤	12/20
해남	비온뒤	12/18	홍산도	비온뒤	10/15
장성	비온뒤	12/20			



◇바다 날씨

지역	암반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북동	0.5~1.0	동~남동	0.5~1.5
남해	남바다	북~북동	0.5~1.5	동~남동	1.0~2.0
남해	서부	서~북서	0.5~1.0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서~북서	1.0~1.5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서~북서	0.5~1.5	북동~동	1.0~2.0

◇생활지수

수면	100
운동	20
빨래	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0:16	12:47	05:40	18:10
여수	07:40		01:20	
	19:59	13:46		

◇주간 날씨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	☁	☁	☁	☁	☁	☁
10/22	14/16	12/18	11/18	8/17	7/16	6/16

아파트·오피스텔 지을때 범죄예방 시설 의무화

이달부터 500가구 이상 건축물 CCTV 설치해야

이달부터 500가구 이상인 아파트와 오피스텔·공영장 등은 주차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국도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건축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시공을 통과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아

파트)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등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이다. 단독주택과 500가구 미만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국토부는 이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우선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한다. /연합뉴스

제주 야영장 텐트 4명 사망 원인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여자·채무문제 고민 유서 발견

제주시 협재해변 야영장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4명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숨진 4명 가운데 1명의 자택에서 이성문씨와 채무문제 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연합뉴스

지난 31일 경찰에 따르면 30일 오후 10시 43분께 제주도 한림읍 협재해변 야영장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J(38·제주시)씨 등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남성이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나이가 출신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4-GN1-36-0110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대한보청기

맞춤 렌탈

수백만 원짜리 보청기, **한달 3~4만원**으로 가능합니다!!

- 첫째, **한달 3~4만원!!**
- 둘째, **전부 무료**
- 셋째, **맞춤 귀속형**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평생1회가입비는 표준 모델 기준 : 242,000원입니다.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보청기 관리를 위한 모든 제반 서비스가 전부 무료입니다.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광주본점 지금 상담중!! **062)430-8900** 순천·여수 본점 지금 상담중!! **061)741-4880** 전주본점 지금 상담중!! **063)251-4999**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강안본사 02)2248-5600 서울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진)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대한보청기 본점은 대한보청기와 우송대학교 언어청각학과가 공동 연구개발 및 연구 협력하고 있습니다. ※ 상기본사직영은 전국 어느 지점을 가나 동일한 시스템(제품·가격·서비스)입니다.